

[목회자 모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2019. 11. 1. 이현래 목사

[로마서 1장 14절~16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 요즘 같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면 이상하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가? 요즘 같은 기독교를 전하는데 뭐가 부끄러운가? 생각해보라. 아가페라는 천하에 없는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 인데 뭐가 부끄러운가?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의 본으로서의 십자가가 뭐가 부끄러운가? 또 십자가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과 봉사에 참여했는가? 너무 자랑스러운 것이다.

더군다나 천주교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대환영을 받는다. 관공서에 가니까 개신교 목사와 신부는 천지차이다. 신부들은 아예 관공서를 아니지 않는다. 수녀들이 다 한다. 수녀들이 들어가면 다 일어나서 절한다. 그런데 목사들은 들어가면 아주 싫어한다. 그것이 현실이다.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내가 인사를 하려고 군수를 만나러 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인사를 하려고 하니깐 쪽지 하나를 꺼내더니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다. 무슨 문제냐고 하니깐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민원이 전혀 없는 데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슨 민원이 있느냐고 말하니깐 두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무안했다. 그래도 교회의 대표자로 화분도 하나 들고 갔는데도 그렇게 무시해 버렸다

그래서 목사 값이 되게 없다고 생각했다. 일을 할 때도 너무 까다로웠다. 나중에 알았는데 관공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멋도 모르고 일을 잘하려면 법을 아는 사람을 보내야 하

지 않겠나 생각하고 맨 처음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을 실무자들에게 보냈다. 물론 우리도 잘못했지만 실무자와 언쟁이 붙어 버렸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니깐 한 사람이 나와서 ‘거기 절대 교회를 못 짓습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쪽 말만 듣고 그렇게 말을 하니깐 우리 형제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못 지어요? 왜 못 지어요?’하고 둘이 붙어버렸다.

이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10년이 걸렸다. 그 동안에 건축 자재 비용이 배로 올랐다. 한 50억이면 된다고 시작을 했는데, 100억이 넘어버렸다.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 값이 비싸졌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관공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만 둘이 갔던 것이다.

지금 개신교 목사 값이 그렇게 싸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신부들은 칙사 대접을 한다. 수녀들이 오면 잘된다. 앞에 나서서 자기들이 해준다. 그래서 관공서에 갔다 오고 나서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국심이 싹 사라졌다. 개신교가 잘못된 것도 많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굉장한 것처럼 하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은 그런 것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복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로마의 사형수다. 이 사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을 할 때는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어디서 그것을 알았는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다. 그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말을 내가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반응이 여러 갈래로 묘하게 갈라져서 나온다. 너무 좋다는 사람이 있다. 이제 확실하다. 너무 좋다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는 사람이 나온다. 왜 저 소리를 계속하나? 한두 번 했으면 말지 하는 사람도 나온다.

그런데 엇그제 누가 간증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알게 되었다. 그 전에 의문스러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데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 한 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4년이고, 한 번 더 연장되면 8년이다. 같은 교무실에서 8년을 같이 보고

살고 일한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할까? 이것이 아주 의문스러웠다. 그래서 교회에서 몇 번 그런 이야기도 했다. 어떻게 입을 다물고 앉아 있느냐는 이야기도 했다.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알았다. 그 자매는 처음부터 내가 사는 삶을 보고 왔다는 것이다. 기독교에 뿌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 삶이 좋아서 왔으니까 자기의 삶은 나를 표준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 살았다는 것이다. 사실은 또 그렇게 살았다. 초창기의 우리 형제자매들은 앞도 뒤도 안보고 내가 사는 대로 살았다. 하다가 안 되더라도 나처럼 살려고 애를 썼다. 이것이 구속받은 사람의 생활이 아니냐는 것이다.

잘 왔는데 왜 갑자기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는 예수를 이야기해서 혼란스럽게 하느냐는 간증이 나왔다. 아주 확실한 간증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았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다. 사실은 우리교회 같은 데가 없다. 한 가족이고 꿈 올려야 꿈울 수 없는 교회이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드물다. 여러분도 대강 뉘새를 말아봐서 알 것이지만 이런 교회가 없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가족이다. 아이들도 다 이모삼촌이고, 너희 엄마 우리 엄마가 따로 없다. 완전히 가족공동체같이 살고 있는 교회이다. 여기 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아주 잘산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한다. 참 이상하다. 왜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이 말이다. 왜냐하면 너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결국 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목사님이 좋아서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말이 먹히겠는가? 그리고 그 말까지 하기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큰 이름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다. 조*기 목사라면 모르지만 이름도 성도 없는 사람인데, 내 자랑을 하고 있으면 저것은 틀림없이 사이비라거나 이단이라고 할 것이 당연하니까 말을 못한다.

이번에 간증을 들으며 그것을 알았다. 저 사람들이 할 말은 나를 자랑할 것 밖에 없는데, 나를 세상에 자랑할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집 안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자랑거리가 못된다. 그래서 말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다.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당연하게 나를 어떻게 전파하겠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이분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고 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내 이름은 없어져도 좋으니깐 그분이 전파된다면 나는 구속에 묻히면 되니깐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할지 안할지 그것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중매쟁이에 불과하다. 나는 그렇게 감사한다. 중매만 제대로 했다고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길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것이 못 뛰어내리는 예수를 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전해온 예수를 전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다.

지금까지 전해온 예수는 전하기가 아주 쉽다. 끝없는 영원한 사랑, 죽기까지 복종한 복종, 목숨을 내건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것을 내 놓으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런 면에서 시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한국에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주라는 사람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대번에 이단이라고 한다. 당연히 그렇다.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교주를 자랑하니깐 이단으로 몰릴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뻔했다.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저것도 사이비고 교주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교주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중매쟁이가 되려는 것인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자기들은 예수를 본다는 것이다. 내가 한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모르지만 목사님을 보고 알겠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중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말을 하려면 하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 말씀을 볼 때 바울도 당시에는 로마의 사형수를 전파해야 되는데, 이것이 떳떳했겠는가? 이 세대가 점점 그 세대보다 더 어려운데, 과연 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교황의 옷을 입히고 두건을 씌우는 그런 예수를 전해야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불교 방송을 들으면 절절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 우리처럼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수양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오늘도 새벽에 들었는데 대학교수가 나와서 하는데, 아주 요즘 사람들의 구미에 딱 맞는 것이다. 요즘 마음수련회니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서양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왔는데 자기중심적인 시대 사람들은 이 불교 말이 자기들에게 너무 맞다. 기독교 말은 맞지 않는다. 못 믿을 것을 믿으라고 하지 사형수(죽은) 예수를 복음이라고 하면 머리가 다 커서 믿으려고 하겠는가?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예수가 전달되겠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모순이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해서 죽은 그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구속자로 만유의 구속자로 전파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렇다고 버리고 세상처럼 나가버리면 기독교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없어진다. 대자대비 앞에서 영원한 사랑이 맥을 추겠는가? 불교의 말은 전부다 절절히 합리적인 말이다. 그런데 기독교 말은 비합리적인 말이 너무 많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억지가 된다.

유럽에서는 점점 문을 닫고 있고, 미국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 그 사람들은 침례교이기 때문에 아직도 명맥을 유지한다. 친구 한명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다. 거기서는 주일 오전에 집회를 하기 전에 성경공부 시간이 있다고 한다. 우리 같으면 1부 예배시간에 성경공부를 하는데 철저하게 교리 공부를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구원파도 미국의 침례교이다. 미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를 뒤집어 놓았던 것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금 침례교가 유지 되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침 성경 공부에 나온 사람만 그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한다. 대집회는 이 사람 저사람 나오니까 자기들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에 큰 교회에 있다가 왔다. 큰 교회는 소수민족에게 시간을 배정해준다고 한다. 거기서 한국교회 목사를 했다. 그리고 선교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잘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침례교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공부하는 성경공부다. 철저히 교리적이다.

구원파가 그것이다.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해서 장로교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면 그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이 아시지요.’ 그렇게 대답하던 시대이다. 그런 시대에 보라. 성경에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했다고 했다. 우리를 다 구원했다고 했다고 하니까 다 눈이 확 뒤 집혔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들었는데 6개월 동안 발 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고 다녔다고 했다. 참 대단했다. 그러니까 변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교회가 갈 길은 세상에 부끄러움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야 된다. 예수 사역의 목표는 구속이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구약에 그런 것들은 다 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탈한 자리에서 원위치로 되 돌리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전부다. 예수님은 이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종교에는 없는가? 구약에는 없는가? 다 있다. 그 예수,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했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그 분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면 기독교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배경에는 큰 싸움이 있다. 천사냐? 인간이냐? 이 싸움이다. 천사가 하나님 아 들이냐?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냐? 인간은 천사 앞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왜 냐하면 신성이 없기 때문이다. 뛰어내려보라고 하는데 못 뛰어내린다. 그러면 못 뛰어내리면서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이 말이다. 네가 뛰어내리지도 못하면서 무 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것이다. 할 말이 있는가?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고 뛰어내리지 못한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이다. 참 사 람은 그것이 참 사람이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면 그것이 인간인 가? 잘 한번 생각해보라. 그것을 인간이라고 하겠는가? 신이라고 한다. 그 신이 라면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속하겠는가? 신으로서는 구속할 수 없다. 꼭 사람이 라야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

뛰어내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당당해야 한다. 뛰어내리지 못한 것에 당당해야 된다.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당당해야지 부끄럽 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인권을 포기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었다.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이 신성을 표현한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형상으로 지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형상이지 우리가 그 실체가 아니다.

밭은 씨를 뿌려놓으면 열매를 낸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주인이 다 거둬가 버린다. 아무것도 없다. 도로 밭이다. 옥수수가 낫던지 포도가 낫던지 그것은 밭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무엇인가? 내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창조된 우리 자체가 비극이다.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어서 주인에게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우리가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알고 보면 이것이 인간의 권리이다. 못 뛰어내린 것도 인간의 권리이다. 천사 같으면 뛰어내리겠지만 사람이면 못 뛰어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성전꼭대기에서 못 뛰어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신기가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다. 인격 때문에 귀한 것이다.

나는 예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다. 다들 신기를 자랑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정말 곤란했다. 옆 사람들은 신기를 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나도 해보려고 돌아다녔다. 삼각산을 헤매고 돌아다녔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고민했다. 알고 보면 그때 나는 항상 천사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천사에 대한 열등감이다. 내가 인격을 알고 난 후에 그것이 싹 사라졌다. 방언할 사람은 하고, 신기 낼 사람은 내 보라. 은사를 받아서 한하는데 뭐라 하겠는가? 해보라. 그러나 내가 갈 길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지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을 지으면서 만일 사람에게 신기가 필요했다면 신기를 주면 된다. 사람에게

는 전혀 신기가 없다.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가지고 영을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생기는 생기지 영이 아니다. 그 생기는 동물에게 넣어준 것이다. 여러분이 원어를 찾아보라. 그 생기는 노아 홍수 때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매장했다고 하는데 그 기식과 같은 것이다. 생기가 없는 생물은 하나도 없다. 모든 생물이 다 생기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생령이 아니고 산 혼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이 되거나 비슷하게 지어졌다고 생각한다. 형상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 비슷하면 좀 노력하면 된다는 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신들에 대한 신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사람 복음'이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가, 사람이 천사보다 얼마나 나은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것이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히 2:9) 이것이 히브리서의 요점이다.

사람의 권위, 인권, 인간의 권위, 인격의 권위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 그런데 현존하는 인간사회를 통해서 볼 때, 이 인간들을 가지고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구속 안에 있는 그 인간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다 인권이 있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과 다른 인권이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인권회복이라고 하면 우선은 자기가 좋아하겠지만 그것이 인권이 아니고, 천사에 대한 우리들의 인권이다. 천사 할 일은 천사 할 일이고, 인권은 인권이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히1:14) 천사들은 일꾼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내가 그런 비유를 늘 쓴다. 왕국에서 왕자가 있고, 신하가 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다. 왕자는 이제 태어났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공부를 누구에게 하는가? 영의정, 좌의정에게 공부를 해서 성장한다. 그러면 왕의 선생이다. 일단 왕

자로 태어나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신하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신하이다. 이 어린 아기가 왕에 등극하면 선생이었던 좌의정은 신하가 되고, '전하'라고 해야 한다.

이것이 똑같다. 예를 들면 천사는 좌의정이다. 그런데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이다. 우리도 인간을 그 회복된 자리로 불러오는 것인데 어디로 불러 가는가? 천당으로 불러 가는가? 어디로 불러 가는가? 복음을 전해서 어디로 데려가는가? 인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로 가야 한다.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복음을 못 전한다. 너무 귀하고 당당하고 값진 것이다. 구속 없이는 참된 교회도 안 되고, 구속 없이는 복음도 전할 수 없고, 구속 없이는 우리 인간 회복이 불가능하다. 구원이 무엇인가? 인권이 회복된 것이 구원이다. 인권회복이 구원이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살다가 해방이 되었다. 무엇이 해방인가? 주권해방이다. 우리는 주권이 없는 나라였고, 주권이 없는 백성이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 주권이 없는 사람이다. 뭘 하든지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노예들이 무슨 권리가 있는가?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야 한다. 거기 있으면서 아무리 주권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내 달라고 하니깐 바로가 뭐라 하는가? 뭘 하려고 나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제사 드릴 데가 없느냐?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깐 모세가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드릴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광야에 나가야만 제사를 드릴수가 있다고 했다. 애굽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 애굽에 있으면 바로의 백성이고 바로의 종이다. 주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런데 세상에 주권이 없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사탄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가로되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게 원하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 있다. **“이 모든 권위(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눅4:6)고 한다.

세상 만국의 영광은 사탄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이다.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 하나님 나라를 주장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세상이 필요할 때는 가져 가지만 필요 없으면 버려버린다. 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아부하거나 세상에 눈치를 보면 안 된다. 세상이 필요할 때는 가져가고, 세상이 필요하지 않으면 버려 버린다.

옛날 박**대통령 때는 나라를 위한 살림을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고 좋다고 했던 사람이다. 그때 전군 신자운동을 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육일전쟁을 하고 난 후에 승리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연구를 했다. 무엇이 저런 힘을 갖고 있는가? 종교이다. 그래서 종교를 공급했다.

통일교가 왜 컸는지 아는가? 그때 일본에 조총련과 민단이 있었는데 민당은 힘이 없고 조총련만 힘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 가도 조총련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통일교에서 가서 통일교 교리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조총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박**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조총련을 이길 방법은 통일교밖에 없다고 해서 통일교를 막 도와주었던 것이다.

이 사람은 국익이 된다며 무엇이든지 통일교라도 자기는 상관 없으니까 기독교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세상은 그렇다. 지금 기독교인 인구가 7~800명이 된다고 하는데, 만일 기독교인이 2천만 명이 되면 정치가들은 다 교회를 나온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좋아서 나오겠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온다.

황제가 왜 기독교를 승인했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큰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황제이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기독교가 많이 퍼져서 기독교를 빼면 안 되니까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했고, 그래서 국교가 된 것이다.

세상은 자기 이용할 데로 이용하는 것이지 결코 예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레닌도 만일 예수가 오신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모자를 벗고 예수를 경배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 말이 예수를 알고 한 말이 아니다. 나는 기독교를 반대하지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말이다. 그것이 예수 좋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임만 당한 것이 아니고, 그냥 뛰어내리지 못했다는 말은 천사와 비교한 말이다. 이것이 없이는 인권회복이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불가능하다. 사람은 비록 100살을 못살고 죽는다. 질병이 있다. 환란이 있다. 고통이 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도 사람이다.

나도 지금 집밖에 못나오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그래도 사람이다 날아다니는 천사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다. 그것이 인권이다. 그것이 우리 자존감이다. 아이들에게도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심어주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번에 불교 방송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과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별 결론이 없다. 내가 그때 생각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자존감을 심어주어야 되겠구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심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무엇을 하러 가는가? 인권을 찾아주러 가는 것이다. 정치적 인권이 아니다. 영계에서 하나님 세계에서 인간의 인권을 찾아주러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인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엇을 전하겠는가? 좋은 일을 하라는 말을 누가 안하는가? 누가 못하는가? 공자님한테만 잘 배워도 좋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자님 말씀에 30에 입지하고, 40에 불혹이고, 50에 지천명이고, 60에 이순이고, 70에 불유구라 한다. 이것이 정말로 옳게 산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 20이면 약관인데 머리 틀고 벼슬한다는 것이다. 30이면 입지이다.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정해져야 한다. 40이면 불혹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50이면 지천명으로 천명을 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산 사람이 몇 명 되겠는가?

나는 그때 한번 70이 될 때 계산을 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안했고 공자님에게 배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졌다. 저절로 살아졌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대로 가보니까 그렇게 살아졌다. 나는 40에 불혹이었다. 그때 이미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그 후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그리고 50에 지천명인데 그때 천명을 알았다. 내 운명을 알았다. 내가 공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60은 이순이다. 귀가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왜? 나는 남의 말을 들을 때 사심 없이 듣는다. 70이 되니 오유소욕 불유구라. 내가 하고 싶은 데로 하더라도 남에게 걸림이 안 된다. 그것은 군자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만 따라 살면, 하나님이 부른 데로 가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일이다.

우리가 구속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창세 이래로 쌓여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왜 인간은 이렇는가? 이 문제가 다 어디서 나왔는가? 동산을 벗어났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왜 감기에 걸리고, 왜 폐렴에 걸리는가? 건강하지 못해서 걸린다. 균 때문에 걸리는 것 같으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걸려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걸리지 않는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면 인생 문제가 뭐가 있겠는가?

인생 문제를 하나하나를 해결한다고 종교가 나서서 그 짓을 왜 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 종교이다. 감기치료 따로 하고, 폐렴치료 따로 하고 돌아다니려면 어느 세월에 그것을 다하겠는가?

구속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보다 영광스런 직분이 없다. 사람들을 내가 구속 안으로 이끈다는 것은 이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명의보다도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병을 고쳐버리는 사람이다.

약 한 첩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이런 것이다. 문둥병이 못 고치는 병이라고 했다. 그때 약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 약 하나가 나오니까 싹 사라져버렸다. 한방에 다 나가버린다. 사람도 그렇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나도 기력이 없어서 문제인데 기력이 있으면 산소통을 쓰지 않아도 산소포화도가 올라간다. 배고프고 힘이 없으면 산소를 아무리 써도 산소포화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컨디션이 좋아지면 산소포화도가 올라간다. 생명이라는 것이 신기하다.

우리 모든 인간이 구속 안으로 들어가서 동산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보다 영광스럽고 행복한 직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뛰어내리지 못한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내가 행복해진다. 내가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한다. 천사 앞에는 그것을 자랑해야 되지 안 그러면 천사가 물러가겠는가? 마귀가 물러가겠는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만 하더라도 좀 여유가 있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4:3/눅4:3)고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눅4:4)고 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아예 여유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도 못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하고 죽었다. 완전히 실패한 것 같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한 것이 완전히 성공이다.

거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눅4:4)고 할 때만 하더라도 여유가 충분히 있다. 사탄이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사탄이 공격할 여유가 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그 자리에는 사탄이 올 자리가 없다. 아예 범접할 자리가 없다. 더 이상 관계를 할 수 없다.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마4:6/눅4:9)고 할 때,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뭐라 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지었지 천사로 안 지었다. 너는 뛰어내리겠지만 나는 못 뛰어내린다. 내 할 일은 다른데 있다고 하면 뭐라 하겠는가?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눅4:5,6)고 했다. 여기서 확실한 대답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견디겠는가?

복음은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다. 너무 귀중한 것이다. 이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일은 없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병원에는 각과가 있어서 환자가 버글버글한데 거기에 만약에 약 하나만 가져가서 다 낫는 약을 가지고 다니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 병원에서는 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그 의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의사가 아니겠는가.

병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인간 회복은 그렇게 될 수 있다. 한마디면 회복될 수 있다. 인간으로서 회복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으로 지어진 것이 잘못 지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는가?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했다. 심히 좋다고 했으면 우리가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를 저질러 놓았다.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가 신성이 있니 없니 해서 전하려고 애를 쓴다. 천년이 넘도록 연구하고 토론해도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사람을 놓고 신이냐? 인간이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해결이 되겠는가? 나는 그것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인간으로 온다. 천사로 오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럽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사람들이 다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부끄러움이 저절로 없어졌다. 둘이 연합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2:25)고 한다.

언제 인간의 수치심이 없어지겠는가? 언제 두려움이 없어지겠는가?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할 때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10)라고 했다. 동산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고 했는데, 동산밖에 나가니까 당장에 두려워 숨었다고 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 신기가 있는 사람의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이 안 된다. 예수님이 조금만 신기가 있었다면 우리는 구속이 불가능하다. 뛰어내릴 수도 있었는데 안 뛰어내렸다고 하면 우리는 구속이 불가능하다. 확실하게 못 뛰어내려서 죽은 예수라야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다. 역설이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본 위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세상에 뒤집어져 있는 것이다.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뒤집어져 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야 한다. 원위치로 회복해야 한다. 내가 언제까지 이려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살아있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끝났다하면 데려 갈 것이고, 안 끝났다고 하면 계속 살려 놓을 것이다.

여러분이 함께 전사가 되면 좋겠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이 일에 한 군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역자 모임에서 이런 간증이 나온다는 것은 나는 너무 감사하다. 오늘 한 사람이 한 것보다 한 사람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잘만 말하면 되는데 말을 잘못하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 과제이다. 어떻게 하면 잘 말하는가? 이것이 과제이지 이것 자체가 변경되면 절대로 안 된다. 바꾸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세상 듣기 좋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되었다. 지금 어디 가서 구속이라는 말을 듣기도 어렵다.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신학에만 있고 교리에만 있지 어디가도 찾아보기 힘들다. 구속과 관계없는 종교가 되었다.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다. 나는 해보니까 그렇다.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예수가 도와주는가?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예수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것이 풀리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제 보니까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이것 한가지 밖에 없다. 예수가 없으면 꼭 안 될 일은 이 한 가지 뿐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없어도 얼마든지 된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 잘 나갈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리 알고 다 해주었다. 내가 얼마나 잘나가는 사람인줄 아는가? 나는 기도해보지 않았다. 내 앞길에 기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미리 다 알고 다 해주었다.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놓듯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착착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주시오. 주시오’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공부하지 않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봐야 되겠는가? 안 된다. 공부하면 저절로 된다. 일부러 내가 미워서 떨어뜨리겠는가? 잘 나갈 때는 정말 잘나갔다. 예수가 필요 없었다. 예수가 나한테 왜 필요한가? 이 생각을 왜 했겠는가? 내가 구하기 전에 미리 주시니까,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마지막에 오니까 예수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 생각이 들었다. 참 암담했다. 내가 평생 예수를 안다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분이 오지 않았다면, 만일 이분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더라면, 나는 뭐가 되었겠는가?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나에게 구속이 왔다. 정말 확실하게 왔다. 전화위복이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의 구속이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한다.